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인 유학생의 문화적 자기개념, 문화적응전략, 정신건강의 관계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강 혜 원

한인 유학생의 문화적 자기개념, 문화적응전략, 정신건강의 관계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강 혜 원

인 준 서

강혜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_____(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_____(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_____(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의 문화적 자기개념이 문화적응전략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각각의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현재 캐나다, 미국 2개 국가에서 유학중인 만 18세 이상의 남녀 135명이었으며, 문화적응전략 척도,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 우울 척도, 불안 척도,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한인유학생의 독립적 자기개념은 동화전략과 통합전략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주변화전략과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분리전략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우울 수준이 낮으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으며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독립적 자기개념 경향이 높은 한인 유학생은 분리, 주변화 전략에 비해 통합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 정신건강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과 불안 수준이 가장 낮았고,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과 불안수준이 가장 높았고,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낮아 좋지 않은 정신건강상태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개인주의 문화특성

을 보이는 국가에서 유학중인 한인유학생은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통합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통합전략을 사용할 때 가장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인유학생, 문화적응전략, 문화적 자기개념, 정신건강.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5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적응 ····· 6
2. 문화적 자기개념 ····· 8
3.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 ····· 10
4. 문화적응전략과 정신건강 ····· 12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 14
2. 측정 도구 ····· 18
3. 자료 분석 ····· 23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 ····· 24
2. 주요 변인들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 24
3.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의 관계 ····· 27
4. 문화적응전략 집단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 30

Ⅴ. 논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 32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 ····· 36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 1> Barry의 문화적응전략 ····· 7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16
<표 3> 문화적응전략 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 19
<표 4>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 20
<표 5> 우울 및 불안 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 21
<표 6> 주관적 안녕감 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 22
<표 7> 주요 변인들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 26
<표 8>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 적합도 ····· 28
<표 9> 분리전략 집단 대비 문화적응전략 집단들의 승산비 ····· 28
<표 10> 통합전략 집단 대비 문화적응전략 집단들의 승산비 ····· 29
<표 11> 주변화전략 집단 대비 문화적응전략 집단들의 승산비····· 29
<표 12> 문화적응전략 집단별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차이 검증 ····· 3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는 세계화 현상에 발맞추어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외교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2013)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이후로 한인유학생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 2013년에는 22만 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유학생들이 세계화 시대에 따른 제 2외국어 실력의 중요성,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 등의 이유로 해외유학을 선택하지만, 제 2외국어를 적절하게 구사하며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매우 힘든 심리적 어려움을 동반한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진입한 개인들은 문화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Sam & Barry, 1995; Ward, Bochner, & Furnham, 2001).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은 가족문제, 문화적응문제, 재정문제, 학교문제, 인종차별, 건강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ha, 1994; Parr, Bradley, & Bingi, 1992). 미국 내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의 적응정도를 알아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의 29%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고, 30%는 자주 향수병을 경험하며, 46%는 물리적으로는 미국에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고국에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Rajapaksa & Dundes, 2002).

이처럼 유학생들은 새로운 주류문화 안에서 취약한 존재로 많은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이에 관련된 연구는 연령, 유학기간, 외국어 구사 능력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안병철, 1996; 김영희, 2005; Zhang & Goodsonb, 2011; 윤숙희, 2012). 이에 비해 주류문화로의 적응 과정에서의 심리 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내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이 연구되었으나(박영숙, 박광배, 최상진, Antony Marsella, 김주한, 2002; 이수연, 2009; 권미경, 이순형, 2010), 그 중 비교문화심리학자들이 제시하는 문화적 자기개념 개념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유학생들의 적응과정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적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최경린, 2011). 김민선(2002)은 각기 다른 문화에 따라 개인들의 내적특성의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서 개인들의 문화적 자기개념도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적 자기개념은 크게 독립적 자기개념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으로 나뉘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형식으로 설명된다(Markus & Kitayama, 1991). Markus와 Kitayama는 문화적 자기개념은 내적, 인지적 특성으로서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주의 문화로 대표되는 유럽과 미국의 서구권은 독립적 자기개념이 보다 쉽게 발견되고, 집단주의 문화로 대표되는 아시아와 같은 비서구권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주로 나타난다. 물론, 동시에 한 문화권 내에서도 독립적 자기개념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Markus et al., 1991; Singelis, 1994; Triandis, 1989).

기존의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단일차원의 문화적응시각에서 진행되었다. 단일차원에서의 문화적응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고유문화에 대한 몰입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주한 사회의 주류문화에 대한 몰입으로 종결되는 하나의 연속선적(single continuum) 현상으로 개념화된다(Gordon, 1964). 이후 1980년대에 Gordon의 단일차원 문화적응시각은 문화적응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을 지닌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이주민의 고유문화의 정체성과 이주사회의 주류문화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다차원 문화적응전략이 Berry(1997)에 의해 제시되었다(박정의, 2012). 이 전략은 기존의 단일차원

의 문화적응전략의 연구에 비해서 적응과정과 경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의 문화적 자기개념 개념을 이민자들이나 장단기 체류자들의 문화적응과정에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민선(2002)이 서양문화권내의 동양인 이민자에 대한 연구나 동양 문화권 내의 서양인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에 문화적 자기개념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뒤, 최경린(2011)은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분리전략, 통합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독립적 자기개념이 동화전략과 통합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동화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는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라는 김민선(2002)의 가설을 지지한다.

한편 문화적응에 대한 초기 연구는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로 시작되었고, 1950년대부터는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고국을 떠난 소수 민족 이민자나 유학생은 더 많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리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근원지인 고국을 떠난 것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때문이다(Kou & Tsai, 1986). 주류문화 적응의 정도는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좌절감, 불안감, 소속감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wthwaite, 1996).

문화적응전략과 이민자들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전략 중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변화전략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화와 분리전략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osic, Mametti, & Sam, 2005). 이는 자신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류사회의 일원이 된 이민자들이 최상의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한 Berry(1995)의 주장과 일치한다.

문화적응전략은 원문화, 주류문화의 유지에 관한 모형으로 4가지 유형의 적응전략을 설명하지만, 각각 전략이 의미하는 심리적 적응 수준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미권에서 유학중인 만 18세 이상의 한인유학생이 사용하는 문화적응전략에 따른 정신건강상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적응전략이 한인유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다양한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한인 유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단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문화적응전략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보는 한인유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 있는 문화적응전략을 밝혀냄으로써 주류문화 적응과 관련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유학생의 상담 장면, 적응촉진교육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북미권에서 유학중인 만 18세 이상의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문화적 자기개념에 따른 문화적응전략 유형을 알아봄으로써 각각의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는 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각의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의 정신건강상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적응전략 사용과 심리적 적응간의 연관성을 알아내 한인유학생의 주류문화 적응과정촉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앞에서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인유학생의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문화적응전략 유형을 예측할 것인가?

가설 1.1 한인 유학생의 독립적 자기개념은 통합전략, 동화전략 유형을 예측할 것이다.

가설 1.2 한인 유학생의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분리전략 유형을 예측할 것이다.

【연구문제 2】각각의 문화적응전략에 따라 한인유학생의 정신건강상태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가설 2.1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이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에 비해 우울,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낮고,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가설 2.2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이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에 비해 우울,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고,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낮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적응

한 사람이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획득한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과 같은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를 '문화'라고 하며, 각각의 문화는 고유한 규범을 가지고 있다(Hendricks & Hendricks, 1979). Berry(1980, 1997)는 한 개인이 이주 등으로 속해있던 기존 문화를 떠나 낯선 사회에 정착하는 경험으로 인하여, 특정 문화적 맥락에 익숙해진 개인이 새로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여주는 문화적 변화과정을 "문화적응(acculturation)" 이라고 설명하였다(채나리, 2011).

Berry(1997)는 문화적응이 이주 집단의 고유문화에 대한 문화적 유지(cultural maintenance)와 이민사회의 주류문화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접촉과 참여(contact and participation)의 독립적인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는 다차원적 접근방법을 제시하며, 이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되는 4가지 문화적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합(integration)은 원문화도 유지하면서 이민사회의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경우로, 두 문화를 성공적으로 통합한 사람은 양쪽에서 모두 유능한 이중문화적(bicultural) 태도를 가진다. 둘째, 동화(assimilation)는 원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이민사회의 주류문화만을 수용하는 경우로, 주류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상실하여 주류 집단에 흡수된다. 셋째, 분리(segregation)는 원문화를 유지하고 이민사회의 주류문화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주변화(marginalization)는 원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이민사회의 주류문화

와도 접촉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표 1>과 같다.

표1. Barry의 문화적응전략

차원2 \ 차원1		원문화와의 관계	
		유지	유지하지 않음
이민사회의 주류문화와의 관계	유지	통합	동화
	유지하지 않음	분리	주변화

Barry의 4가지 문화적응 전략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인간의 대처전략(coping strategy)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문화적응은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며, 특정한 하나의 전략을 선택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전략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발달과정에 따라서 즉 개인의 연령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문화적응전략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선호하는 문화적응전략을 주류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정진영, 양계민, 2004).

재미한인들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들의 상당 부분은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조인주, 2010; Choi & Dancy, 2009; Jang & Chiriboga, 2010; Kim, Gonzales, Stroh, & Wang, 2006; Shim & Schwartz, 2007; Suinn, 2010). 특히 스트레스, 약물, 우울증 등 이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빈번한데, 이는 동화중심(assimilation-oriented)의 단일차원 문화적응 시작에서의 연구이며, 다차원적인 문화적응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정의, 2012).

위와 같이 단일차원의 문화적응 시각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지만, 문화적응전략 시각에서의 연구는 재미한인의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 설명을 제공한다. Kim(2009)은 문화적응전략과 우울증상간의 상관관계의 연구를 통해 통합 전략의 경우 우울증상과 부적관계를, 주변화 전략의 경우 우울증상과 정적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Lee(2004)은 재미한인의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학업 자아개념, 외모 자아개념, 그리고 학습 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합 전략을 구사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학업 자아 개념과 외모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다차원적 문화적응 시각은 이민, 유학생 집단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응전략과 적응과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2. 문화적 자기개념

문화적 자기개념(self-construal)은 타인과 관계되는 자아,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에 관한 사고, 정서, 행동의 집합체로 정의된다(Singelis, 1994).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의 독특한 특성·태도·목표·신념과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적인 맥락, 대인관계, 집단 소속감은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타인과 맺은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적 역할에 맞게 행동하고, 집단과 관계의 조화를 추구하며, 친밀한 타인의 생각, 감정, 행동이 이들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김현미, 방희정, 2006). Markus와

Kitayama(1991)는 전자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독립적 자아개념, 후자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독립적 자아개념(independent self-construal)은 사회적 상황과 분리된 경계가 있고 단일하고 안정된 자아개념으로 정의한다. 독립적 자아개념의 주요 특성은 자신의 독특한 특성, 능력, 기호, 관심, 목적이나 경험들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맥락, 대인 관계, 집단 구성원의 개념은 자아 정의에 덜 영향을 미친다(Greetz, 1975; Markus et al., 1991; Triandis, 1989). 독립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독립성과 자아실현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특정 사람과 사건은 개인적 성취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내적 통제를 중요하게 여긴다(Ingman, 1999).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독특하고 특별함을 강조하는 사고와 행동, 타인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행동, 타인과 공유하는 기술과 태도의 발달은 자기 평가와 자존심을 증진시키는 의미로 사용된다(김은경, 2004). 독립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들도 소속집단이나 타인과의 관계성을 추구하지만, 그들의 추구는 개인적 목표를 반영한다(Markus et al., 1994).

상호의존적 자아개념(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은 사회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적응적이고 변화 가능한 자아로 정의한다.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과 맺은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적인 역할에 맞게 행동을 하고, 집단과 관계의 조화를 추구하며,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자아정의에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고, 친밀한 타인의 생각, 감정, 행동은 이들의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자존심과 자기 고양은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양명순, 하정희, 2007; Markus et al., 1991).

3.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

많은 연구들은 독립적 자기개념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각 개인들이 소속된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적 자기개념은 개인주의적 문화권을 표상하고,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집단주의적 문화권의 실례에 해당한다(Singelis & Brown, 1995).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구분법은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라는 자아개념과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갖는다. 개인주의 문화에 속해있는 개인은 집단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집단주의 문화에 속해있는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그 존재 단위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로 규정된다(Hofsted, 1980).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간주되는 서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개념이, 집단주의 문화권인 동양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지배적이다(Singelis et al., 1995; Hara & Kim, 2004; Park & Ahn, 2008). Singelis와 Brown(1995)의 연구는 유럽인은 독립적인 경향이 강하고, 아시아인은 상호의존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를 밝혔다.

김민선(2002)은 Berry의 문화적응전략(1999)과 문화적 자기개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하게 된 주류문화에 맞게 자신의 문화적 자기개념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시 말하면, 동화전략을 사용하며 동시에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 유학생들이 독립적 경향의 주류문화에 속하게 된다면 독립적 자기개념으로 바뀔 것이고, 동화전략을 사용하며 동시에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 유학생들이 상호의존적 경향의 주류문화에 속하게 된다면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 문화적 자기개념과 함께 주류문화 경향에 맞는 문화적 자기개

념을 함께 발전시킬 것이며, 분리전략의 사용자들은 원 문화적 자기개념을 유지할 것이며, 주변화전략의 사용자들은 새로운 문화적 자기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 문화적 자기개념 또한 유지하지 않고 격하시킨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최경린(2011)은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의 관계를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독립적 자기개념의 사람들은 자기인식에서 타인과 차별화되는 개인적 특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속했던 고유문화에 대한 소속감이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들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자기개념의 사람들은 새로운 주류문화를 받아들이는 통합, 동화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상호의존적인 자기개념의 사람들은 자기인식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원문화에 대한 소속감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독립적 자기개념의 사람들에 비해 중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사람들은 분리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독립적 자기개념은 통합전략과 동화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동화전략의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적 자기개념이 분리전략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는 동일한 동양문화권내에서의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설명을 동양문화권 유학생의 서양문화로의 적응과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왜냐하면 동양문화권에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주를 이루고, 서양문화권에서는 독립적 자기개념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중국유학생의 한국문화로의 적응은 집단주의 문화의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또 다른 집단주의문화에 재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집단주의문화의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개인주의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양문화권의 한인유학생이 서양문화권 내에서 적응할 때 문화적 자기개념에 따라 문화적응전략이 구분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미권에서 유학중인 한인유학생의 심리 내적인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 전략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문화적응전략과 정신건강

타국의 새로운 환경과 언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한다(Zhang,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불안, 소외감, 심각한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Suh, 2006), 그 중 대표적으로 우울증상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Oh, Koeske, & Sales, 2002; 박형원, 2010; 이순희, 2012.). 이민과 정신장애 유병율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이민자는 우울 28.4%, 불안장애 37.1%, 신체화 장애 29.4%로 내국민보다 높은 유병율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Arieli, Gilat & Aycheh, 1996).

반면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민가족의 부모가 주류문화보다 원문화의 가치를 추구하고 원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높은 주류문화 적응수준을 가진 청소년 자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uinn, 2010).

문화적응전략과 이민자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전략 중 통합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변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화와 분리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osic, Mametti, & Sam, 2005). 캐나다에서 많은 인종 집단들내의 이민자들의 태

도에 관한 연구는 통합전략이 가장 적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낳는다고 밝혔다(Berry, 1990; Berry & Kim, 1988; Berry et al., 1987). 또한 동화전략은 중간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연관되고, 분리와 주변화전략은 가장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박정의, 성지연(2012)의 연구에서도 통합전략이 재미한인의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재미한인들이 취하는 문화적응전략을 이차원 문화적응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에서는 통합전략 집단의 노년층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고, 더 나은 신체 및 정신건강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했다(Jang, Kim, Chiriboga, & Kallimanis, 2007).

기존의 다차원의 문화적응전략에 따른 정신건강의 연구는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유학생은 단기체류자로, 장기체류자인 이민자들과 주류문화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민자 연구 결과를 유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북미권에서 유학중인 한인 유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위해서 다차원의 문화적응전략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며 캐나다, 미국 2개 국가에 현재 유학중인 만 18세 이상의 남녀 2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캐나다, 미국지역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설문지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213부의 자료 중 답변을 빠트리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78부를 제외한 13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대상에 한해 $5 상당의 커피교환권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135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 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31명(23%), 여성 104명(77%)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았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22세 사이가 72명(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 23세에서 만 27세 사이가 50명(38.5%), 만 28세 이상이 10명(7.7%), 무응답이 3명(2.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22.7세(*SD*=3.0)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 국가로는 캐나다 69명(51.1%), 미국 65명(48.1%)로 거의 유사하였다. 현재 거주 형태로는 자취가 70명(5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기숙사가 27명(20%), 자가가 12명(8.9%), 홈스테이가 11명(8.1%), 기타가 9명(6.7%), 친척집이 4명(3.0%), 무응답이 2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처음 유학 왔을 때 연령은 만 18세 이후가 85명(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생 시기가 25명(18.5%), 고등학생 시기가 13명(9.6%), 초등학생 시기가 11명(8.1%), 무응답이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학기간은 36개월 이상이 74명(5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이 26명(19.3%),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이 13명(9.6%), 6개월 미만이 11명(8.1%), 24개월 이상~30개월 미만이 7명(5.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 3명(2.2%),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 1명(0.7%), 무응답이 0명(0%)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과정은 University 재학이 51명(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설어학원 재학이 29명(21.5%), College 재학이 27명(20%), 기타가 19명(14.1%), 대학 내 ESL이 6명(4.4%), Community College 2명(1.5%), 무응답이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35)

인구 통계학적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31	23%
	여	104	77%
	무응답	0	0%
현재나이	만 18세~ 만 22세	72	55.4%
	만 23세~ 만 27세	50	38.5%
	만 28세 이상	10	7.7%
	무응답	3	2.2%
현재 거주 국가	캐나다	69	51.1%
	미국	65	48.1%
	무응답	1	0.7%
현재 거주 형태	자취	70	51.9%
	홈스테이	11	8.1%
	친척집	4	3.0%
	학교 기숙사	27	20.0%
	자가	12	8.9%
	기타	9	6.7%
	무응답	2	1.5%
처음 유학 왔을 때 연령	초등학생	11	8.1%
	중학생	25	18.5%
	고등학생	13	9.6%
	만 18세 이후	85	63.0%
	무응답	1	0.7%

인구 통계학적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전체 유학기간 (2개 이상 국가에서 유학한 경우, 모든 기간을 합함)	6개월 미만	11	8.1%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	26	19.3%
	12개월이상 ~18개월 미만	13	9.6%
	18개월이상 ~24개월 미만	3	2.2%
	24개월이상 ~30개월 미만	7	5.2%
	30개월이상 ~36개월 미만	1	0.7%
	36개월 이상	74	54.8%
	무응답	0	0%
현재 교육과정	사설 어학원	29	21.5%
	대학 내 ESL	6	4.4%
	Community College	2	1.5%
	College	27	20.0%
	University	51	37.8%
	기타	19	14.1%
	무응답	1	0.7%

2. 측정 도구

1) 문화적응전략 척도

Barry(2001)가 이차원 문화적응 모델의 4단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를 한지은(2007)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기보고 형식으로,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동화의 경우, “나는 집에서 영어를 사용한다.”, “나는 한국어보다 영어로 글쓰기를 더 잘한다.”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리는 “나의 친한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다.”, “나는 주로 한국 음악을 듣는다.”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은 “나는 한국어로 생각한 것처럼 영어로도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미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가 다 있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변화는 “나는 가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일반적으로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사람과 어울리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낀다.”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화적응전략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평균점수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전략을 해당 응답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평균점수범위는 1~7점이다. 원척도의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한지은(200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동화의 경우 Cronbach’α=.77, 분리 Cronbach’α=.76, 통합 Cronbach’α=.74, 주변화 Cronbach’α=.85로 나타났다.

각각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 계수는 <표 3>와 같다. 내적 일치도 분석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가 낮아 신뢰롭지 않다고 판단된 20번 문항을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표 3. 문화적응전략 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하위영역	해당문항	*Cronbach'a*
동화전략	1, 5, 9, 13, 17, 21, 24, 27.	.79
분리전략	2, 6, 10*, 14*, 18, 22.	.74
통합전략	3, 7, 11, 15, 19.	.71
주변화전략	4, 8, 12, 16, 20, 23, 26, 28, 29.	.90

*역채점 문항

2)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

Singelis(1994)가 개발한 척도로 독립적 자기개념의 경우 “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내겐 중요한 관심사이다.”, “나는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고 독특하게 되는 것을 좋아한다.”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경우 “나의 행복은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달려있다”, “집단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다”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자기관이 강함을 나타낸다. 총 점수 범위는 각각 12~84점이다. 두 하위척도의 Cronbach'α는 각각 .69, .73으로 보고되었다(Singelis, 1994). 본 연구에서는 문혜신과 오경자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각 하위척도의 문항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문항의 순서를 바꾸어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문화적 자기개념은 연속변수로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각각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 계수는 <표 4>와 같다. 내적 일치도 분석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가 낮아 신뢰롭지

않다고 판단된 16번, 23번 문항을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적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55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김보경(2003), 조미랑(2004), 한정연(2008)의 연구에서도 각각의 독립적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59, .59, .53으로, 본 연구와 같이 낮은 내적 합치도가 나타났다. 이에 독립적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가 측정하고자 한 것을 정확히 측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표 4.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하위영역	해당문항	*Cronbach'a*
상호의존적 문화적 자기개념	1,3,5,7,9,11,13,15,17,19,21.	.70
독립적 문화적 자기개념	2,4,6,8,10,12,14,18,20,22,24.	.55

3) 정신건강 척도

(1) 우울 및 불안척도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90문항 중 우울측정도구 13문항과 불안측정도구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Derogatis와 Govi(1973)가 개발하고 Kim, Kim과 Won(1984)이 한국인을 대

상으로 표준화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기보고식 도구이다.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총 점수범위는 우울 13점~65점, 불안 10점~50점이다. 배정이, 박현주(2010) 연구에서 Cronbach'α=.90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 계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우울 및 불안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하위영역	해당문항	*Cronbach'a*
우울	1,2,3,4,5,6,7,8,9,10,11,12,13.	.90
불안	14,15,16,17,18,19,20,21,22,23,24.	.93

(2) 주관적 안녕감

Diener(1984)는 일상적인 행복에 대응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며,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자신의 삶에 많이 만족하고 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며 부적인 정서를 적게 느끼는 것을 높은 행복의 상태로 보았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는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Criffin(1985)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

도를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는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개발한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를 이현희 등(2003)이 재번안한 한국판 PAN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많이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각각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 일주일 간 해당 정서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 계수는 <표 6>와 같다.

표 6. 주관적 안녕감 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하위영역	해당문항	*Cronbach'a*
삶의 만족도	1,2,3,4,5.	.86
긍정정서	1,2,3,4,5,6,7,8,9,10.	.78
부정정서	11,12,13,14, 15,16,17,18,19,20.	.90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캐나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인유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한인 유학생의 문화적 자기개념이 문화적응전략 유형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문화적응전략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

전체 135명의 연구대상자 중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독립적 자기개념에 비해 높은 한인유학생은 50명(37%)이고, 반대로 독립적 자기개념이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비해 높은 한인 유학생은 81명(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전략에서는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2명(1.5%), 분리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63명(46.7%),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52명(38.5%),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18명(38.5%)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 간의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분리전략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다(r=.18, p<.05). 이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분리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독립적 자기개념은 동화전략(r=.20, p<.05)및 통합전략(r=.39, p<.05)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주변화전략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r=-.25, p<.05). 이는 독립적 자기개념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동화전략

혹은 통합전략을 사용하고, 주변화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통합전략은 우울(r=-.21, p<.05)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관적 안녕감(r=.31,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울 수준이 낮고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주변화전략은 우울(r=.63, p<.01), 불안(r=.55,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관적 안녕감(r=-.48, p<.01)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울과 불안수준이 높고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독립적 자기개념은 우울(r=-.20, p<.05)과는 부적인 상관관계, 주관적 안녕감(r=.23, p<.0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표 7. 주요 변인들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n=135)

	1	2	3	4	5	6	7	8	9
1.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								
2. 독립적 자기개념	.06	-							
3. 동화전략	-.08	.20*	-						
4. 분리전략	.18*	-.08	-.72*	-					
5. 통합전략	-.01	.39*	.52*	-.31*	-				
6. 주변화전략	-.11	-.25*	.10	-.03	-.26*	-			
7. 우울	.02	-.20*	0.03	0.14	-0.21*	0.63**	-		
8. 불안	-.09	-.10	0.02	0.05	-0.15	0.55**	0.75**	-	
9. 주관적 안녕감	.12	.23**	0.14	-0.13	0.31**	-0.48**	-0.64**	-0.61**	-
M	4.55	4.90	2.98	4.70	4.61	3.39	28.16	18.46	84.68
SD	.06	.05	.09	10	.09	.12	.88	.76	1.50

*p<.05, **p<.01

3.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의 관계

한인 유학생의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문화적응전략 유형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범주형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베타 추정값과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해석한다. 승산비가 1보다 작으면 독립변인이 증가할수록 기준집단에 비해 종속집단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고, 0이면 변화가 없으며, 1보다 크면 기준집단에 비해 종속집단에 속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송지은, 2012).

우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설명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기저모형의 -2 Log likelihood는 275.51이고, 설명변수가 포함된 분석모형의 -2 Log likelihood는 256.55로 두 값의 차이가 18.96(df=6, p<.05)으로 나타나 두 값의 차이가 유의하여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 적합도는 Deviance chi-square값이 248.00(p=1.00)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모형 적합도 검증을 토대로 분석모형을 채택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표 8>에 보고하였다.

먼저, 분리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을 기준집단으로 사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9>에 보고되었다. 독립적 자기개념 경향이 높은 사람은 분리전략에 비해 통합전략을 선택할 확률이 1.76배 높다.

다음으로,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을 기준집단으로 사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0>에 보고되었다.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유학생은 통합전략에 비해 분리전략을 선택할 확률이 0.57배로, 다시 말해 분리전략에 비해 통합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1.76배 높다.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유학생이 통합전략에 비해 주변화전략을 선택할 확률은 0.38배로, 다시 말해 주변화전략에 비해 통합전략을 사용할 확률은 2.64배 높다.

다음으로,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을 기준집단으로 사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1>에 보고되었다.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유학생은 주변화전략에 비해 통합전략을 선택할 확률이 2.64배 높다.

이것은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한인 유학생은 분리, 주변화 전략에 비해 통합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인 유학생의 독립적 자기개념이 통합전략, 동화전략유형을 예측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을 일부 지지한다. 하지만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분리 전략을 예측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2는 지지되지 않았다.

표 8.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 적합도

	Model Fitting Criteria	*Likelihood Ratio Tests*		
	-2 Log likelihood	*Δx2*	*df*	*sig*
Intercept only	275.51			
Final	256.55	18.95	6	.004

표 9. 분리전략 집단 대비 문화적응전략 집단들의 승산비

예측변수	동화전략	통합전략	주변화전략
상호의존적자아	0.26 [0.05, 1.22]	0.92 [0.62, 1.36]	1.126 [0.64, 1.98]
독립적 자아	2.62 [0.56, 12.31]	**1.76 [1.16, 2.69]**	0.67 [0.39, 1.16]

주. 굵은 숫자는 승산비가 α=.012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안의 숫자는 95%의 신뢰구간임.

표 10. 통합전략 집단 대비 문화적응전략 집단들의 승산비

예측변수	동화전략	분리전략	주변화전략
상호의존적자아	0.28 [0.6, 1.31]	1.09 [0.74, 1.61]	1.22 [0.68, 2.22]
독립적 자아	1.49 [0.32, 6.86]	**0.57 [0.37, 0.87]**	**0.38 [0.21, 0.70]**

주. 굵은 숫자는 승산비가 α=.012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안의 숫자는 95%의 신뢰구간임.

표 11. 주변화전략 집단 대비 문화적응전략 집단들의 승산비

예측변수	동화전략	분리전략	통합전략
상호의존적자아	0.23 [0.05, 1.16]	0.89 [0.51, 1.56]	0.82 [0.45, 1.48]
독립적 자아	3.91 [0.78, 19.58]	1.49 [0.87, 2.58]	**2.64 [1.44, 4.82]**

주. 굵은 숫자는 승산비가 α=.012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안의 숫자는 95%의 신뢰구간임.

4. 문화적응전략 집단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한인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에 따라 정신건강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먼저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의 수가 2명으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해당 응답자 수가 매우 작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의 수가 2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이유는 크게 2가지를 추론해볼 수 있겠다. 첫째, 유학생은 이민자와 달리 단기 체류자이고 한국으로의

귀국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류문화의 정체성 수용보다 쉬운 선택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지는 한인유학생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되었다. 즉, 대상자들은 한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학생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고유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으로 간주된다.

이에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 2명을 제외한 133명의 한인유학생들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3가지 문화적응전략을 독립변인으로, 정신건강 상태(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통합전략 집단과 주변화전략 집단이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집단 유형에 따른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결과는 <표 12>과 같다.

우울의 평균점수는 주변화전략 집단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분리전략, 통합전략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의 평균점수도 주변화전략집단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분리전략, 통합전략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점수는 통합전략 집단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분리전략, 주변화전략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별로 다시 정리하면, 통합전략집단이 우울과 불안 평균이 가장 낮고, 주관적 안녕감 평균이 가장 높았다. 주변화전략집단이 우울과 불안 평균이 가장 높았고, 주관적 안녕감은 집단 중 가장 낮았다.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우울과 불안은 통합전략집단에 비해서 주변화전략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고, 주관적 안녕감은 주변화전략집단에 비해서 통합전략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에서 분리전략집단의 정신건강 수준이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집단의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통합전략집단이 분리전략집단에 비해서 우울과 불안이 낮고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 이를 통해 통합전략집단의 정신건강상태가 분리전략집단에 비해서 양호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 유학생이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우울과 불안 수준이 낮고,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이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에 비해 우울,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낮고,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을 것이라는 가설 2.1를 일부 지지하고,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이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한인 유학생에 비해 우울,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고,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낮을 것이라는 가설 2.2를 지지한다.

표 12. 문화적응전략 집단별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차이 검증

(n=133)

	분리[1] (n=63)	통합[2] (n=52)	주변화[3] (n=18)	F	사후 검증
	$M(SD)$	$M(SD)$	$M(SD)$		
우울	28.35 (9.72)	25.02 (8.80)	35.61 (11.15)	5.85*	1=2<3
불안	18.16 (8.73)	16.54 (7.43)	24.56 (10.07)	4.19*	1=2<3
주관적 안녕감	82.44 (14.19)	90.44 (16.80)	75.72 (24.07)	4.14*	3<2=1

*p<.05

Ⅴ. 논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는 한인유학생의 심리적, 문화적 적응과 관련 있는 심리적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개인의 문화적 자기개념이 문화적응전략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각각의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이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문화적 자기개념이 문화적응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one-way ANOVA를 통해 문화적응전략 집단에 따른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의 집단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135명의 연구대상자들 중 독립적 자기개념에 비해 높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유학생은 51명,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비해 높은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유학생은 81명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전략에서는 2명은 동화전략, 18명은 주변화전략, 52명은 통합전략, 63명은 분리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대상자들은 주로 통합, 분리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류문화만을 유지하고 고유문화를 유지하지 않는 동화전략 사용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경린(2011)의 연구결과에서도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적었다는 점과 일치한다. 유학생은 이민자와 달리 단기 체류자이기 때문에 주류문화의 정체성 수용보다 고유문화의 정체성 유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이 온라인 한인 커뮤니티에서 모집되었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한인 유학생이 연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한인유학생의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 선택이 유의한 관련을 가정했던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독립적 자기개념은 동화전략과 통합전략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고, 주변화전략과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분리전략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이는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한인 유학생은 동화,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성과 주변화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한인유학생은 분리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한인 유학생은 고유문화에 대한 소속감보다 자신의 개인적 특성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새로운 주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화전략과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한인 유학생은 자신의 개인적 특성보다 고유문화에 대한 소속감에 보다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주류문화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리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성장한 높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한인 유학생은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한인 유학생에 비해서 주류문화인 개인주의 문화의 정체성 수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분리전략을 사용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문화적응전략과 정신건강의 유의한 관련을 가정했던 연구가설도 일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우울 수준이 낮으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통합전략과 불안 수준은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

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으며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이는 한인유학생이 주류문화와 원문화를 모두 유지하는 통합 전략의 사용이 좋은 정신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인유학생이 주류문화와 원문화 모두를 유지하지 못 하는 주변화 전략을 사용할 때 좋지 않은 정신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문화적 자기개념이 문화적응전략 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적 자기개념이 높은 한인 유학생은 분리, 주변화 전략에 비해 통합전략을 사용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인 유학생의 독립적 자기개념이 통합전략, 동화전략 유형을 예측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을 일부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화전략에 대한 연구결과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는 전체 대상자 135명 중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2명에 불과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독립적 자기개념이 높은 한인유학생은 자신이 속했던 고유문화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통합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문화적응전략 선택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경린(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개념과 분리전략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분리전략 선택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반대로 분리전략의 사용이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유지와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을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다. 분리전략은 한인 유학생에게 집단주의 한국문화를 유지하게 하고, 동시에 문화적 자기개념 개념은 속해있는 문화성향에 영향을 받는다(Singelis & Brown,

1995). 따라서 한인 유학생의 문화적 자기개념은 집단주의 한국문화에 영향을 받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자의 추론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적응 전략 집단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로,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과 불안수준의 평균이 가장 낮았고,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아 좋은 정신건강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과 불안수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낮아 좋지 않은 정신건강상태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의 정신건강상태가 가장 양호할 것이라는 가설 2.1과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의 정신건강상태가 가장 양호하지 못 할 것이라는 가설 2.2를 지지한다. 특히, 사후검증에서 통합전략집단이 주변화전략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전략집단의 정신건강 상태는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세 집단의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값을 고려해보면 분리전략집단에 비해 통합전략집단이 양호한 정신건강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주류문화와 고유문화를 모두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에서 통합전략이 가장 적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Berry, 1990; Berry & Kim, 1988; Berry et al., 1987; 박정의, 2012; 손한나, 2011). 또한 주변화전략은 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Kosic, Mametti, & Sam, 2005).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개인주의 문화특성을 보이는 국가에서 유학중인 한인유학생은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통합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통합전략을 사용할 때 가장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이 새로운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화적응전략을 4가지로 나누었을 때 문화적응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만 18세 이상의 한인유학생을 단일 표본으로 하여 소속된 문화의 영향을 받는 문화적 자기개념과 개인의 문화적응전략의 연관성, 그리고 문화적응전략과 정신건강상태의 연관성을 찾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장기체류가 예정된 이민자가 아닌 한인유학생을 단일표본으로 한 유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한인유학생들의 문화적응전략과 심리적 적응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현장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인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을 점검하고, 주류문화와 고유문화 정체성 모두를 균형감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개입이 한인유학생의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들 수 있다. 자신의 문화적 자기개념과 주류문화의 문화성향을 비교해보고, 현재 사용하는 문화적응전략을 확인함으로써 적응과정에서 생긴 심리적 어려움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고유문화 혹은 주류문화 중 한 가지 문화의 정체성만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적응적인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유문화, 주류문화의 정체성을 함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자의 구체적인 조언은 한인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촉진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로 인하여 대상자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캐나다,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유학생들의 설문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가 대상자 선정 및 설문지 작성의뢰를 직접 할 수 없었기에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고르게 표집 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한계점이 있었다.

둘째, 현재 캐나다,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용하지 않는 한인 유학생에 비해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롭고 다양한 한인유학생 표본의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문화적 자기개념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 심리적 변인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주의문화권 국가에서 유학중인 한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집단주의문화권 국가에서 유학중인 한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한인유학생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유학중인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유학생들 혹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유학중인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유학생의 심리적, 문화적 적응 양상에 대한 후속 연

구가 진행된다면 문화와 개인의 적합성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시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문화적 자기개념과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 정신건강상태 세 가지 변인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문화적 자기개념이 정신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적응전략이 매개하는 효과를 살펴본다면 한인유학생에 대한 더욱더 풍부한 이해와 구체적인 개입의 방향성에 기여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부 (2014.02). http://www.moe.go.kr/main.do

권미경, 이순형 (2010). 조기 해외 유학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 문화적응이론에 근거하여. 인간발달연구, 17(1).

김민선 (2008). 인간 커뮤니케이션, 비서구적 관점.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김보경 (2003).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사회불안 -공적자의식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 (2005). 뉴질랜드 조기 유학생의 유학생활 성공요인 탐색연구. 인간발달연구,12(4), 57-97

김은경 (2004). 자아 해석 양식에서 성차와 사회 불안 및 우울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미, 방희정, 소유경, 옥정, 김은경 (2006). 한국 남녀 대학생 집단에서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1(4), 437-458.

김현실 (2006). 이민청소년의 정신건강: 캐나다 소수 민족 이민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행동연구, 11, 1-15.

김현실 (2012).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2, 39-70.

김현주, 유성경 (2008). 미국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9(2).

박영숙, 박광배, 최상진, Antony Marsella, 김주한 (2002). 미국 일시거주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촉진을 위한 인터넷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1(8).

박용천 (2004). 한국 이민 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3(5).

박정의, 성지연 (2012). 재미 한인의 삶의 만족감과 문화변용.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9(7~37).

박형원 (2010). 해외이주 한인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재영 한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8), 308-316.

배정이, 박현주 (2010). 미국 이민 한국인의 우울 및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9(1), 67-75.

손한나, 이영호 (2011). 유학생의 자기결정적 동기, 문화적응, 정신건강의 관계. 인격교육, 5(1), 83-107.

송지은 (2012). 군집분석을 통한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혜숙, 김미영 (2006). 미국이민 한국인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동서간호학연구지, 12(1), 43-55.

안병철 (1996). 조기 유학의 현황과 과제: 북가주 조기 유학생을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 4, 423-468.

양명순, 하정희 (2006). 자아해석 방식이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7(2), 85-105.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63-76.

윤덕명 (1999).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숙희 (2012). 한인 유학생의 적응에 영향하는 요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7(2).

이경은 (2012). 중년기의 스트레스와 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민아 (2010). 이민 전·후의 연결망이 결혼이민자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도과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7, 31-60

이수연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조기유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6(2).

이순희 (2012). 재미 한인대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과 음주문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3(4), 366-375.

이지영, 이주연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0(2), 83-101.

이현지, 남현주 (2003). 청소년 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미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0(4), 121-142.

임영언, 이화정 (2013). 한국거주 일본인의 문화적응모형과 다문화적 수용태도 연구. 평화학연구, 14(4).

임은미, 정성진, 이수진 (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담학 연구, 11(3).

임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89-221.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3(1), 101-136.

조미랑 (2004). 외향성 수준과 문화적 자기관 유형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나리 (2012).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변용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

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경린, 박정의 (2011). 문화적 자기개념이 문화변용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55(5).

한정연 (2008). 대학생의 문화적 자기관 유형과 자기 통제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지은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형태와 사회적 지지 정도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rieli, A., Gilat, I., & Aycheh, S. (1996). “Suicide among Ethiopian Jews: A survey conducted by means of a psychological autops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4:* 317-319.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8.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 ,Inc. ,Publishers.

Beck, A. T., Ward, C. H., Menda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4,*561-571.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M.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 (pp.9-25). Boulder, CO: Westview.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pp.232-253). Newbury Park, CA: Sage.

Berry, J. W. (1995).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NR Goldberg, & JB Veroff (eds.), *The Culture & Psychology Reader; 457-488.*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68.

Berry, J. W. (1999). Intercultural relations in plural societies.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40*,12~21.

Berry, J. W.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rry, J. W.,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Dasen, J. W. Berry, & N. Satorius (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pp.207-236). Newbury Park: Sage.

Berry, J. W., Kim, U. C.,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21,*491-511.

Choi, H., & Dancy, B. L. (2009). Korean America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perceptions of acculturative stress.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22(4)*, 203~210.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Geertz, C. (1975). *On the nature of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American Scientist, 63*, 47-53.

Gordon,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ara, K., & Kim, M. S. (2004). The effect of self-construals on conversational indirect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8(1)*, 1～18.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Thousand Oaks*, CA: Sage.

Ingman, K. A. (1999). *An Examination of social anxiety, social skills, social adjustment, and self-construal in chinese and American students at an American University*.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Jang, Y., & Chiriboga, D. A. (2010). Living in a different world: Acculturative stress among Korean American elder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65(1),* 14～21.

Jang, Y., Kim, G., Chiriboga, D., & Kallimanis, B. (2007). A bidimensional model of acculturation for Korean American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Studies, 21(3), 267～275.*

Kim, E. (2009). *Multidimensional acculturation attitudes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American.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0, 98～103.

Kim, M. S. (2002). *Non-Western Perspectives on Human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Kim, S., Gonzales, N., Stroh, K., & Wang, J. (2006). Parent - child cultural marginal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Asian American family member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 167～182.

Kosic, A., Mannetti, L., & Sam, D. L. (2005). Self-monitoring: A

moderating role between acculturation strategies and adaptation of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 141-157.

Lee, M. S. (2004). *Acculturative experiences of Korean-Americans: Exploring self-concept, learning style, and the identification of giftedness at the microlevel and the macrolevel contexts.* Dissertations Collection for University of Connecticut.

Lewthwaite, M. (1996). A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perspectives on cross-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19*, 167-185.

Maha, G. E. (1994). Health survey of new Asian and African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12,* 303-310.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Oh, Y., Koeske, G., & Sales, E. (2002).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 (4)*,511-526.

Park, H. & Ahn, J. (2008). Cultural differences in estimation of other people's self-construals: Comparison of Korea and USA.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 208～213

Parr, G., Bradley, L., & Bingi, R. (1992). Concerns and feeling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20-25.

Rajapaksa S & Dundes L. (2002). It's a long way home: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to living in the United States. *College Student Retention; 41*: 15-28.

Sam, D. L. & Berry, J. W. (1995). Acculturative stress and young immigrants in Norwa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6*, 10-24.

Samuel Noh and william R. Avison (2014). Asian Immigrants and the Stress Process: A Study of Koreans in Canad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2)*, 192-206.

Shim, Y., & Schwartz, R.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difficulties among Korean immigrants living in a western society. *British Journal of guidance&Counseling, 35*, 409~426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Singelis, T. M., & Brown, W. J. (1995). Culture, self, and collectivist communication - linking culture to individual behavio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1(3)*, 354～389.

Suh, B. R. (2006). *Saetomin adolescent's acculturative stress and drinking behavior: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alcohol expecta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Suinn, R. M. (2010). Reviewing acculturation and Asian Americans: How acculturation affects health, adjustment, school achievement, and

counseling.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1)*, 5~17.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Ward, C., Bochner, S. &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Hove, England:* Routledge. Publishers.

William A. Vega, Ruben G. Rumbaut (1991). Ethnic Minorities and Mental Health. *Annu. Rev, Social, 17*, 351-383

Zhang J & Goodsonb P. (2011). Predictors of international students' psychosocial adjustment to life in the United State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2): 139-162.*

Zhang, J. L. (2009).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self- control, and emotion on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Acculturation, Self-Construal and Mental Health in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Kang, HyeWo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among acculturation, self-construal and mental health of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 Canada and U.S.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135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over 18 years old by on-line survey.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Self-Construal scale, the parts of SCL-90-R,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d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were administered. Data was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know how self-construal works on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and one-way ANOVA to know difference of mental health within strategies of accultur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dependent self-construal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assimilation strategy and integration strategy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marginalization strategy.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eparation strategy.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who use integration strategy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ubjective wellbeing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On the other hands,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who use marginalization strategy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anxiety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subjective wellbeing. Second,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independent self-construal are tend to use integration strategy rather than separation strategy or marginalization strategy. Third, through one-way ANOVA,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depression, anxiety and subjective wellbeing for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depending on what a strategy of acculturation use. Based on these resul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self-construal, mental health.

감사의 글

2010년 여름의 끝자락에 저는 캐나다 동부의 시골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1년가량, 유학생활을 하며 말 그대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생김새의 사람들, 다른 언어, 다른 풍경, 다른 문화. 동시에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가족도, 오랜 친구들도, 나의 언어도, 집도 없었고 심지어 내가 강혜원이라는 이름으로 25년 동안 불리었던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 생경하고 강렬한 경험 안에서 저는 오롯이 혼자 울고 웃으며 나를 더욱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이 경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학생들의 심리적, 문화적 적응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싶고, 유학이라는 경험 안에서 자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성장과 적응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긴 여정의 첫 걸음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계획서부터 본 심사까지, 흔하지 않은 주제의 연구를 흥미와 애정의 시선을 바라봐주시며 지도해주신 이정윤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심하고 꼼꼼한 교수님의 지도 없이는 이 논문이 빛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통계분석에 많은 가르침을 주신 조영일 교수님과 문화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세세한 피드백으로 논문의 빈틈을 단단하게 채워주신 박혜경 교수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같이 한 상담랩 선후배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논문 스터디 같이 해온, 지혜언니, 수연이, 진희, 태희, 마지막으로 든든한 상희언니. 고마워요. 상희언니, 그동안 천방지축 우리 데리고 스터디 진행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동기들. 은영언니, 혜경이, 수연이, 지수. 같이 조교생활하며 수업 들으며 조별모임하며 보냈던, 짧지만 강하게 고생한 우리 2년, 정말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아. 우리 돈암피플 박정은, 손유진. 매족과 홍

합으로 대동단결하며 근근이 타지생활+대학원생활 버텨온 비구니들에게 의리를 보낸다. 니네 논문 쓸 때도 야식 같이 먹어줄게. 너희 없었다면 이 동네에서 정말 외로웠을 거야. 고마워. 그리고 같이 논문 진행한 윤아선배. 혼자 썼으면 중도포기 여러 번 했을 텐데 이 모든 험난하고 복잡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의지가 되었어. 고맙고, 수고했어.

서울에서 혼자 유학한다고 늘 딱하게 여겨주시는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큰 이모, 작은 이모. 고마워요. 이제 논문 끝났으니, 시골, 대전 자주 내려갈게요.

지난 8개월 동안 바쁘다고 두문불출한 나에게 한결같은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었던 오랜 친구들. 지칠 때면 늘 생각하는 충남대 캠퍼스, 심리학과 언니, 오빠, 동생들, 동기들.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논문을 선물합니다. 재미없겠지만, 강혜원이 성장한 중요한 기록이니 오래도록 간직해주세요.

집에 가면 늘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있어주었던 매향, 찌깐, 쪼깐. 논문 쓴다고 한동안 너희 집 청소도 겨우 해줬는데.. 이제 열심히 치워줄게. 하루 중 조용히 앉아 너희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제일 평온해. 오래 같이 살자.

무엇보다 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해주신 엄마, 아빠. 두 분을 향한 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어찌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요.

마지막으로, 수정관 랩실에서, 방구석에서, 대학원 열람실에서, 머리 쥐어뜯으며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낸 강혜원. 나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정말 너무나 고생했고, 수고했어. 강혜원이 정말 짱이야♥

2014. 7.

수정관 7층에서

부 록

부록 1. 문화적응전략 척도

부록 2.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

부록 3. 우울 및 불안 척도

부록 4. 삶의 만족도 척도

부록 5.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북미권에서 유학중인 한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현재 북미권(미국,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한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북미권 국가로의 이민자 및 시민권자는 연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지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답하여 주십시오. 질문지 작성에는 약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실하게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응답자의 E-mail로 5$ 상당의 커피교환권을 제공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예: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연구에 포함된 질문들에는 별도의 정답이나 오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귀하의 평소 생각·느낌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들이 제시된 순서대로 답하시고, 앞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귀중한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귀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다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나, 제시되는 모든 질문들에 답해 주신다면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이메일 하십시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지도 교수 이 정윤

석사 과정 강 혜원

본인의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며, 이 연구 참가에 동의합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질문지 작성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

부록 1. 문화적응전략 척도

아래 문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보다 영어로 글을 더 잘 쓴다.	1	2	3	4	5	6	7
2	내가 듣는 음악의 대부분은 한국 음악이다.	1	2	3	4	5	6	7
3	나는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 모두로 농담을 한다.	1	2	3	4	5	6	7
4	일반적으로 나는 한국인이든 캐나다인이든 누군가와 교제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6	7
5	집에 있을 때, 나는 주로 영어를 사용한다.	1	2	3	4	5	6	7
6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한국인이다.	1	2	3	4	5	6	7
7	나는 생각할 때 한국어로 할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한다.	1	2	3	4	5	6	7
8	나는 때때로 한국인이나 캐나다인 어느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9	만약 누군가가 내게 시를 써보라고 한다면, 나는 영어로 쓸 것이다.	1	2	3	4	5	6	7
10	나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들인 모임에 나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	1	2	3	4	5	6	7
11	나는 한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들 모두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12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 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6	7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한국인들보다 캐나다인들과 더 잘 어울린다.	1	2	3	4	5	6	7
14	나는 한국인들보다 캐나다인들이 나를 더 동등이 대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15	나는 한국인들과 캐나다인들 모두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16	나는 때때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7
17	나는 한국인들보다 캐나다인들이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18	나는 캐나다인보다 한국인과 데이트하는 것을 선호한다.	1	2	3	4	5	6	7
19	나는 캐나다인들과 함께 있을 때나 한국인들과 함께 있을 때나 모두 매우 편안하다.	1	2	3	4	5	6	7
20	나는 때때로 친구 사귀기가 힘들다.	1	2	3	4	5	6	7
21	나는 한국인들보다 캐나다인들에게 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쉽다.	1	2	3	4	5	6	7
22	나는 캐나다인과 있을 때 보다 한국인과 있을 때 더 편안한다.	1	2	3	4	5	6	7
23	때때로 나는 한국인들과 캐나다인들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24	나는 한국인들보다 캐나다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한국인들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과 데이트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6	7
26	때때로 나는 캐나다인들과 한국인들 모두를 믿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6	7
27	학교나 직장에서의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캐나다인이다.	1	2	3	4	5	6	7
28	나는 종종 캐나다인이나 한국인 모두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29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부록 2.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교류(상호작용)하고 있는 윗사람을 존경한다.	1	2	3	4	5	6	7
2	나는 오해를 받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직접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하겠다.	1	2	3	4	5	6	7
3	내게는 내가 속한 집단 내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7
4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는 것은 나에게는 문제가 안된다.	1	2	3	4	5	6	7
5	나의 행복은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달려있다.	1	2	3	4	5	6	7
6	생생한 상상력을 갖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1	2	3	4	5	6	7
7	나는 버스에서 교수님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1	2	3	4	5	6	7
8	나는 혼자만 칭찬이나 보상을 받아도 편안하다.	1	2	3	4	5	6	7
9	나는 자신에 대해 겸손한 사람을 존경한다.	1	2	3	4	5	6	7
10	나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다.	1	2	3	4	5	6	7
11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기적인 욕심을 희생할 것이다.	1	2	3	4	5	6	7
12	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내겐 중요한 관심사이다.	1	2	3	4	5	6	7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보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자신의 성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4	나는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1	2	3	4	5	6	7
15	나는 학업이나 진로 계획을 세울 때 부모의 충고를 고려해야만 한다.	1	2	3	4	5	6	7
16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곧,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때조차도 깍듯한 말투보다는 편안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1	2	3	4	5	6	7
17	집단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다.	1	2	3	4	5	6	7
18	나는 내가 막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이고 솔직한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6	7
19	나는 내가 그 집단에 속해있는 것이 즐겁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 집단에 머물 것이다.	1	2	3	4	5	6	7
20	나는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고 독특하게 되는 걸 좋아한다.	1	2	3	4	5	6	7
21	내 형제나 자매가 실패하면 나는 책임을 느낀다.	1	2	3	4	5	6	7
22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내 개인적인 정체감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23	집단원의 의견에 매우 동의할 수 없을 때 조차도 나는 논쟁을 피한다.	1	2	3	4	5	6	7
24	나는 무엇보다 건강에 중요한 가치를 둔다.	1	2	3	4	5	6	7

부록 3. 우울 및 불안척도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욕이 감퇴한다.	1	2	3	4	5
2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1	2	3	4	5
3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4	울기를 잘 한다.	1	2	3	4	5
5	어떤 함정이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1	2	3	4	5
6	자책을 잘 한다.	1	2	3	4	5
7	외롭다.	1	2	3	4	5
8	기분이 울적하다.	1	2	3	4	5
9	매사에 걱정이 많다.	1	2	3	4	5
10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	2	3	4	5
11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다.	1	2	3	4	5
12	매사가 힘들다.	1	2	3	4	5
13	허무한 느낌이 든다.	1	2	3	4	5
14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	1	2	3	4	5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1	2	3	4	5
16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1	2	3	4	5
17	두려운 느낌이 든다.	1	2	3	4	5
18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1	2	3	4	5
19	긴장이 된다.	1	2	3	4	5
20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1	2	3	4	5
21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1	2	3	4	5
22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23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한다.	1	2	3	4	5

부록 4. 삶의 만족도 척도

아래 문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내 생활은 이상적이다.	1	2	3	4	5	6	7
2	내 생활여건은 좋다.	1	2	3	4	5	6	7
3	지금까지 나는 내가 원했던 중요한 일들을 성취했다.	1	2	3	4	5	6	7
4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5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부록 5.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다음에 나오는 각 단어는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단어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현재를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잘 나타낸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흥미진진한	1	2	3	4	5
2	과민한	1	2	3	4	5
3	괴로운	1	2	3	4	5
4	기민한	1	2	3	4	5
5	흥분된	1	2	3	4	5
6	부끄러운	1	2	3	4	5
7	마음이 상한	1	2	3	4	5
8	원기왕성한	1	2	3	4	5
9	강한	1	2	3	4	5
10	신경질적인	1	2	3	4	5
11	죄책감 드는	1	2	3	4	5
12	단호한	1	2	3	4	5
13	겁에 질린	1	2	3	4	5
14	주의 깊은	1	2	3	4	5
15	적대적인	1	2	3	4	5
16	조바심 나는	1	2	3	4	5
17	열정적인	1	2	3	4	5
18	활기찬	1	2	3	4	5
19	자랑스러운	1	2	3	4	5
20	두려운	1	2	3	4	5

다음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나이** : 만_____세

3. **현재 거주 국가** : ① 캐나다 ② 미국

4. **현재 거주 형태** :

① 자취 ② 홈스테이 ③ 친척집 ④학교 기숙사 ⑤ 자가 ⑥ 기타

5. **처음 유학 왔을 때 나이** :

① 만6세 이전(초등학교 진학 전)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만 19세 이후(고등학교 졸업 후)

6. **전체 유학 기간 (2개 이상 국가에서 유학한 경우, 모든 기간을 합함)**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2개월 ③12개월~18개월

④ 18개월~24개 ⑤ 24개월~30개월 ⑥ 30개월~36개월

⑦ 37개월 이상

7. **현재 교육과정** :

① 사설 어학원 ② 대학 내 ESL ③ community college

④ college ⑤ university ⑥ 기타